

기독교와 학문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머리말

학문도 하나의 직업적 활동이다. 변호사, 의사, 간호사처럼 학자도 하나의 전문가로 우리 사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문은 다른 전문 분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진리”란 것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 “진리”는 한 전문 영역의 것일 수도 있고 삶 전체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진리”는 흔히 같이 언급되는 “아름다움”, “착함”보다 우리가 인정하고 따를 것을 요구한다.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느끼게 도와줄 뿐 우리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느끼지 못한다 하여 특별히 못한 사람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착함”의 전문가는 없을 뿐 아니라 성자들도 “착함”의 모범을 보일 뿐 우리가 착하게 되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자들이 발견하고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진리”는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야 하며, 무시하면 “무식하고”,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 가운데 학자는 권위를 가장 크게 주장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물론 그 주장의 정도는 문화가 세속화되면 될수록 더 강해졌다.

바로 그 때문에 학문은 역시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문을 종교의 대체물로 간주하였다. 콘포드 (F. M. Conford)는 그리스 철학을 소개하면서 <종교로부터 철학> (*From Religion to Philosophy*)이란 책을 썼고, 콩트 (A. Comte)는 인류의 정신적 발전 과정을 모든 것을 신의 조화로 해석하던 신학적 단계, 영원불변하는 법칙이나 본질을 근거로 설명한 형이상학적 단계, 그리고 모든 것을 실증적 과학으로 설명하는 실증주의적 단계로 나누었다. 그에게는 신학적 단계는 종교적 진리가 지배하던 시대였으나, 실증적 과학이 제시하는 학문적 진리가 그런 미신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비록 콩트만큼 학문적 진리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역시 학문의 권위는 막강하고, 이런 시대에 사는 기독교인, 특히 기독교 학자는 두 “진리들” 사이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아직 모든 기독교 학자들이 이 갈등에 대해 의심 없이 따를 수 있는 해결책을 아무도 내어놓지 못했다. 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할 뿐이다.

1. 역사적 개관

기독교 신앙이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던 지중해 연안, 즉 소아시아, 그리스, 북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로 전파되었을 때 가장 먼저 부딪친 것이 철학, 즉 그 시대의 학문이었다. 그런 충돌은 이미 바울 사도의 선교여행에서 일어났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그는 그 시대의 지배적인 철학 사상이었던 에피쿠리안 (에비구레오) 철학자들과 스토익 (스도이교) 철학자들을 만나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토론하였고, 바울이 그 때 사용한 논변은 그 후 신학자들, 특히 기독교 변증론자들에게 대화의 가능성과 동시에 문제 거리를 제공하였다. 바울은 그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철학적 지혜는 십자가의 도와 서로 조화될 수 없음을 고린도 전서 1장에서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 시대의 학문인 철학을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헛된 속임수나 다름없다고 골로새서 (2:8)에서 무시하였다.

그러나 바울의 비판적 학문관은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려웠다. 학문이 매우 존중되던 헬레니즘 문화에 책의 종교인 기독교를 전파하려면 학문이란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지만, 기독교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만들어 낸 사교나 무식한 사람들의 헛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대 교부들은 철학자들의 오만한 조롱을 그대로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대체로 철학에 대한 교부들의 입장은 철학을 이용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순교자 유스티누스 (Justinus, 주후 165년 순교)가 전자의 대표였고 터툴리아누스 (Q. Septimus Tertullianus, 주후 160년경에 출생, 220년 후 사망)가 후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증

론자 (Apologists)의 대표로 알려진 유스티누스는 “이성에 따라 산 사람은 비록 무신론자로 취급되지만 다 기독교인였다. 그들 가운데는 소크라테스나 헤라클리토스, 혹은 그와 비슷한 그리스인들과 아브라함, 야나니아...와 같은 야만인들도¹⁾ 있다” (Apology I, 46)고 하여 철학자들 대부분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하였고, “내가 기독교인임을 자랑하고 기독교인으로 판명되기를 노력하는 것은 플라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토익 철학자나 시인들, 역사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Apology, II,13)라고 썼다. 물론 그가 그리스 철학에 아부한 것은 아니다. 플라톤은 모세로부터 배웠다고 주장하고, “어떤 것이든 스승들 (철학자들-역자)이 올바르게 말한 것은 모두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유”라 (Apology II, 13) 함으로 기독교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그에 비해서 터툴리아누스는 철학에 대해서 상당할 정도로 비판적이었다. “철학은 세상 지혜의 원료요 하나님의 본성과 섭리에 대한 성급한 해석이다. 이단들은 사실 철학의 자극을 받아 만들어졌다...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카데미²⁾와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스토익적 기독교, 플라톤적인 기독교, 변증법적 기독교는 사라져라”고 외쳤다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7).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Credo quia absurdum, De Carne Christi, 5)란 그의 유명한 발언은 신앙적 입장에서 학문적 논리는 전혀 무력한 것으로 격하하였다. 오늘날 기독교 지식인들이 한 번쯤은 심각하게 되새겨보아야 할 명구가 아닌가 한다.

학문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그 외에도 오레곤 (Oregon),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Clement of Alexandria)등의 교부들에게도 계속 문제가 되었으나, 적어도 중세 말까지는 철학에 어느 정도 아부한 유스티누스 보다는 철학을 조롱한 터툴리아누스의 태도가 우세하였다 할 수 있다. 어거스티누스나 안셀무스 (Anselm of Canterbury, 1033-1109)의 “알기 위하여 믿는다” (Credo ut intelligam)는 기독교 학문에 대한 신앙의 자존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믿음이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중세의 스콜라 철학도 철학을 “신학의 시녀”로 취급하여 격하하였으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 중요하였다. 이성 은 신앙 아래층에 속했으나 자연의 영역에서는 신앙과 무관하게 객관적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유산은 지금도 천주교 전통에 뿌리깊이 박혀 있으며, 유감스럽게도 많은 개신교 학자들도 이 편리한 해결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신앙 따로 학문 따로의 아분법으로 신앙과 학문과의 관계를 쉽게 타협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당연하다.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죽은 개”라 할 정도로 비판적이었고, 이성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후에 니체에 의하여 반복되었지만 루터는 “이성은 창녀”라 선언하였다. 칼빈도 반복해서 철학자들의 무능과 무지,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철학자 전체 족속들이 그들의 어리석음과 우스꽝스러움을 얼마나 거창한 말로 떠들어대었는가?” (기독교 강요, I, v, 11). “이런 능력이 성경에만 있다는 것은 인간의 저술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을 해도 우리를 그만큼 감동시킬 수 없다는 사실로 충분히 증명된다. 데모스테네스, 키케로를 읽어 보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그 족속에 속한 다른 철학자들을 읽어보라.” 그들이 아무리 매혹적이고 즐겁고 감동적이라도 성경 앞에서는 “옹변가들과 철학자들이 거의 물러나고 말 것이다” (강요 I. vii. 2). 비록 개신교인은 아니었지만 어거스틴의 주지주의 (voluntarism) 전통에 서 있었던 파스칼의 명언,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 진정하게 철학하는 것이다” (Se mocquer de la philosophie, c'est vraiment philosopher) (Pensées, 4)란 말은 철학을 상대화할 수 있는 신앙인의 태도를 반영할 뿐 아니라 진정하게 철학하는 정신을 표현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교개혁자들의 학문관은 그렇게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현대 자연과학의 발달³⁾은 학문과 인간 이성의 능력에 에 대한 현대인의 신뢰를 무한대로 높여 놓았던 것이다. 자연과학에 너무 인상을 받은 나머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은 조금씩 뒤로 물러가고 과학과 과학에 대한 찬양이 앞서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의 시인 포오푸 (Alexander Pope)가 뉴턴에 대해서 쓴 헌시 (“자연과 자연의 법칙들이 밤에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뉴턴이 있을지어다.’⁴⁾ 모든 것이 빛이었다”)는 그 시대에 뉴턴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주었는가를

1) 그 시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 이외에는 모두 야만인으로 취급하였고 따라서 유대인도 야만인으로 분류하였다. 유스티누스는 그런 유행을 그대로 따른 것 같다.

2) 플라톤이 세운 철학학교

3) R. 호이카스, <근대과학의 출현과 종교> (손봉호, 김영식 옮김), 1987, 105쪽 이하

상상하게 한다. 철학자 로크 (John Locke)는 지나가는 말로도 “비교할 수 없는 뉴턴 씨” (the incomparable Mr. Newton)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연과학의 발달에 가장 큰 자극을 받은 계몽사상은 인간의 과학적 성취에 대한 오만의 결과이며 기독교에 대한 이성의 도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계몽사상을 한 마디로 “감히 알아라” (Aude sapere!)란 표어로 대변할 수 있다고 칸트가 말한 바 있다⁵⁾. 과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현상 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 사회 등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알아볼 수 있다는 정신이다. 프랑스 수학자요 물리학자였던 라플라스 (Pierre-Simon Laplace)가 성좌도를 나폴레옹에게 보여주었을 때 순진한 나폴레옹은 하나님은 어디쯤 계시냐고 물었다. 그 때 라플라스의 대답, “폐하, 저는 그런 가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는 과학적 지식의 오만을 잘 대변한다 할 수 있다. 이제 어떤 현상이든지 하나님이란 가정 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태도다.

그래도 하나님이 설자리를 하나 마련해 보려고 애쓴 것이 자연신론 혹은 이신론 (Deism)이란 것이었다.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 영국 철학자 로크, 미국 독립에 공헌한 제퍼슨, 프랑클린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는 인정하지만 한 번 창조한 우주는 마치 태엽을 감아놓은 시계처럼 하나님 간섭 없이 독립하여 존재하고 운행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사람은 자연현상, 사회현상, 심리현상 등 모든 것을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19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학문과 인간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절정에 달했다 할 수 있다. 모든 질병은 의학이 해결하고, 노동의 괴로움은 기계가 해결하고, 사회의 문제들도 실증적 사회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운명의 선장”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기독교 학자들도 실증적 근거와 논리적 체계를 갖춘 모든 학문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게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에 심각한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 지식인들이 취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할 수 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은 절대적이고 성경의 옳고 그름도 과학적 진리에 근거해서 판정되어야 한다는 태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과학적이라는 것, 적어도 과학적 사실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을 애써 증명하려 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스꽝스러운 건강부회 성경해석도 마지않았다. 그래서 성경이 과학자의 발견과 일치하면 이는 성경이 역시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여 기뻐한 것이다. 말하자면 과학자의 연구결과를 성경이 옳은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최후의 기준으로 인정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태도는 아직도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과 학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구차한 방법으로 성경의 옳음을 변증하기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게 과학적 사실에 어긋난 성경의 기록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하다는 태도를 취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볼트만과 같은 일연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상당부분이 과학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전제에서 역사적인 사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또 하나의 입장은 신앙과 이성을 전혀 별개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이원론이다. 신앙은 오직 영적인 문체에만 의미가 있을 뿐 학문을 포함한 그 외의 영역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의 지배에 두는 것이었다. 중세의 이원론을 새로운 환경에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중세의 은혜와 자연 이원론은 그래도 은혜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자연의 영역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허락한 것에 비하면, 현대 기독교의 이원론은 과학의 공격에서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어설픈 도피전략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과 신념에서 기독교 학문이 발달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기독교 학문”이란 개념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신앙의 영역에, 학문은 이성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4) Alexander Pope,

An Ode to Newton:

"Nature and nature's laws lay hid in night;

God said Let Newton be!

and all was light."

5) I. Kant, "Was ist Aufklärung?"

그러나 자연과학을 비롯한 학문의 자신감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정점으로 약해지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서양철학의 자기비판은 철학 뿐 아니라 모든 학문이 과연 그렇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칸트로부터 시작된 이성비판은 19세기에 이르러 객관성을 공동주관성(intersubjectivity)으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니체, 쇼펜하우어, 마르크스, 프로이트 등은 큰 설득력을 가지고 이성이란 단순히 인간이 힘을 얻기 위한 의지, 생존 욕, 소유욕, 성욕 등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려 하였다. 이런 경향은 20세기를 거치면서 점점 강화되어 쿤(Thomas Kuhn), 피어아벤드(Paul Feyerabend), 콰인(W. Quine) 등의 과학철학자들과 최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포스트 모던니즘과 구성주의 등의 과학적 상대주의를 가져왔다.

이런 발전은 학문과 이론의 권위를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하락시켰다. 학문은 이전처럼 객관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리고 잠정적인 방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 되었다. 과학은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과학기술은 과학의 발견을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란 생각도 이제는 많이 약화되어, 이제 과학과 과학기술의 구별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과학적 혹은 학문적 이론의 상대화는 기독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기독교가 열심히 애쓰고 싸워서 얻는 전리품이 아니라 학문 그 자체의 계속되는 자기비판의 결과였다. 이런 현상이 기독교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는 어부지리에 불과하다. 너무 오랫동안 학문적 이론의 객관성과 보편성에 대한 확신에 젖어 있어서 기독교 지성인들 가운데는 학문적 이론의 상대주의적 경향을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삶의 안전이 과학적 이론의 객관성에 정초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도전한 사람은 네덜란드 법철학자 도여베르트(H. Dooyeweerd, 1894-1977)였다. 그는 이론적 지식이 가치 중립적이지 아니라는 사실을 매우 설득력 있게 증명하였다. 단순히 중립적이지 아닐 뿐 아니라 모든 이론의 배경에는 종교적 근본동기가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종교적 동기란 역사적으로 알려진 종교들이 그 배후에 작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비판하지 않으면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고의 출발점을 뜻한다. 그런데 그들 동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절대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한가지로 통일될 수 없고 항상 상반되는(dialectical)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양 사상사에서는 그리스의 형(form)과 질료(matter), 중세의 은혜와 자연, 현대 사상의 자유와 자연이 서로 갈등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철학사상 배후에 작용한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모든 이론들은 궁극적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독교적 사상의 근본동인은 창조, 타락, 성령의 교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성의 절대성과 학문적 이론들의 객관성에 대한 비판은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니체, 쇼펜하우어, 마르크스, 프로이트 등 급진적 철학자들에 의하여 가해졌지만, 대다수의 기독교 지성인들이 이론적 학문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그대로 수용하던 시기에 도여베르트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을 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었고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시도라 할 수 있다. 비록 오늘날 그의 이론 자체도 시대에 다소 뒤떨어진 것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도여베르트의 철학은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남아연방, 한국 등의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월터스토포(N. Wolterstorff), 플란팅가(A. Plantinga), 하우드즈바르트(B. Goudzwaard) 등의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의 영향을 받고 세계 기독교계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이론적 학문의 가치 중립성, 객관성, 보편성 주장에 대해서 도전했던 이들 기독교 사상가들이 요즘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론적 학문에 대한 회의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해서 오히려 염려해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 학문의 성격

학문이란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영원불변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개념이 그러하듯 학문이란 개념도 시대, 사회, 그리고 사상가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그러므로

학문과 기독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모든 시대에 타당한 이해와 분석은 불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에 학문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던 지적활동조차도 학문이라 부르기 때문에 학문의 성격은 더욱 모호해졌다. 일반적으로 근거가 있고 논리적 체계를 갖춘 지식이 학문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가운데서도 논리적 체계가 더 중시되어 왔다. 논리학이나 수학은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도 그 체계가 논리적이기 때문에 학문이라 하고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학문의 전형으로 취급되어 왔다.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는 논리적인 것이 학문의 기본적인 조건이었고, 심지어 칸트 같은 현대철학자에게도 논리적 모순이 잘못된 이론의 시금석이었다. 철학이나 이론 물리학도 경험적인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물론 그 근거의 확실성과 체계의 엄격함이 모든 학문에 동일하게 요구되지는 않는다. 논리학이나 수학, 자연과학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와 엄밀한 체계를 요구하나, 철학이나 역사학은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서양 학문에 해당되는 상황이고, 서양 학문관에 기초를 놓은 것은 역시 그리스 철학이다. 오늘날 서양 학문관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으므로 전 세계 학계가 간접적으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고대 그리스에서도 철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학문은 그들에게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삶이란 ...축재와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경기하러 오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러 온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관객(theatai)으로 온다. 그래서 천박한 사람들은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지만 철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한다”⁶⁾란 피타고라스의 말은 그리스인들이 이론적 학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잘 대변한다. 여기서 관객은 돈이나 명예와 같은 이해관계에 초연하여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뜻하고, 바로 철학자 혹은 학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다. 관객(theatai)이란 말과 이론(theoreia)이란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한다. 학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진리 자체를 위하여 진리를 추구하며,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현상 뒤에서 현상을 가능케 하는 본체, 본질만 추구한다. 본질에 대한 지식은 이론적 지식(episteme)이며 경험에 근거한 의견 혹은 상식 (doxa)과 구별된다. 그런 지식은 논리적 사고로만 가능하고 감각은 전혀 공헌하지 않는다. 수학은 그런 지식의 전형이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의 아카데미에 수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다. 그런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학문관은 사실 서양 문화를 지배했으며, 전 세계의 학문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후 현대과학의 발달로 경험의 위치가 점점 더 향상되었고 논리적 추론 못지 않게 실험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감각이 개입되는 실험이 학문적 지식의 객관성과 보편성에는 아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실험이 중시된 것에는 기독교, 특히 종교개혁의 공헌이 매우 컸다.⁷⁾ 호이카스가 지적한 것처럼 기독교가 그리스인들보다 기술, 손, 노동을 더 중요시한 것이 실험의 도입에 공헌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인간 이성은 하나님 창조의 모든 신비를 단순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이성은 신적이며, 그 이성의 능력으로 인간은 원칙적으로 모든 진리를 다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성의 도구인 논리적 추론만으로 모든 것을 알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 이성에게 그런 정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론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보다는 훨씬 더 큰 무게를 둔다. 반 퍼어슨은 인식 주체의 논리적 추론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어진 현실의 중요성을 “현실의 중력”(de zwaartekracht der werkelijkheid = the gravity of reality)이라 불렀다. 실험을 요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 체계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실험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의미에 대해서는 포퍼 (Karl Popper)의 반증원칙 (falsifiability principle)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실험은 과학이론의 옳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만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이론적 지식은 불안하며 잠정적이고 부분적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과학철학자들은 어떤 지식의 체계가 과학적 이론이 되려면

6) Diogenes Laertius, *Lives of the Philosophers*, 8, 8, trans. G. S. Kirk & J. E. Raven,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 228, Arendt, 55에서 재인용. 여기서 theatai는 theory와 같이 Θεόρειν (본다, 관찰한다)에서 파생했다.

7) 호이카스, 85쪽 이하

그 주장을 검증할 수 있어야 (verifiable)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검증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세종대왕은 위대하다” 등은 과학적 발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거나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도어베르트는 우리의 이론적 지식이란 구체적인 개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양상들에 관한 것이라 사실을 잘 지적했다. 또 다른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 폴렌호번 (D. H. T. Vollenhoven)은 과학적 지식의 대상은 “이것” 혹은 “저것” (this or that)이 아니라 “이런” 혹은 “저런” (thus or so)이란 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지적할 수 있는 개체는 결코 이론적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풍부하며 이론적 지식이 현실을 얼마나 단순화하는 것인가를 말해준다. 현실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수많은 접근 가운데 하나이며 가장 우수한 접근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정복하고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과학과 과학기술을 엄격하게 구별할 수 없다.

과학적 지식이 한정된 대상만을 상대로 한다는 사실 뿐 아니라 그것이 상대적이란 주장이 적지 않게 대두되고 있다. 쿤은 과학의 발달은 더 정확하고 더 객관적인 지식으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그 변화 이전의 과학과 그 이후의 과학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어떤 과학이 더 훌륭하고 어떤 것이 학문적 지식의 이상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양자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제 3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피어아벤트는 자연과학조차도 하나의 이데올로기란 좀 더 급진적으로 주장을 폈다. 이제는 이런 주장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최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세계 학계에 존재하는 것 같지 않다. 다윈주의 시대의 상대주의가 학문의 세계에도 예외 없이 지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물을 보는 방식은 다양하다. 별을 아름답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성분의 고체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후자가 전자보다 별을 더 잘 대변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학적 입장에 서서 하는 주장이다. 과학적 접근은 수많은 접근 가운데 하나일 뿐 그것이 더 객관적이고 우수하다는 주장은 하나의 편견이다. 객관적이란 의견일치(consensus)일 뿐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주장은 이미 낡은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것은 모든 학문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학문적 접근이 다른 접근보다 항상 더 실용적이란 사실도 옳지 않다. 어떤 과학 이론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건전한 상식보다 열등하고 그 적용이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의 상당 부분은 자연현상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무시한 원자론적 과학이론들 때문이다. 한정된 예측밖에 할 수 없었고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학문도 하나의 유희다. 전쟁 놀이를 모방한 장기놀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장기의 규칙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규칙일 뿐 그것이 전쟁이란 현실에 근거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 아니다. 그러나 규칙 없이는 놀이가 불가능하다. 학문은 반드시 논리적 규칙을 지켜야 하고, 학계가 인정하는 규범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런 규칙과 규범이 반드시 실재하는 현실이 요구하는 것이거나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보장은 전혀 없고 모든 시대에 타당하다는 근거도 없다. 학계의 규범도 역사적이고 그 시대의 문화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주장이 점점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므로 학문적 이론도 문화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장기 두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규칙에 따라 장기 놀이를 하듯 학자들도 학문의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인위적이고 잠적인 규칙에 따라 노는 놀이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도 않고 종교나 윤리만큼 심각하지도 않다.

3. 기독교와 학문

종교도 비교종교학자에게는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으나, 종교인에게는 심각하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교리를 진리로 믿고 심각하게 취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믿을 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다른 주장은 다 상대적이다. 학문의 이론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인간이 수행하는

하나의 놀이일 뿐 절대적인 진리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론적 지식으로 성경 말씀의 권위를 관정하는 것은 주객의 전도다.

학문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지 못한다. 학문의 의미와 관계해서 베버(Max Weber)는.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해답을 주었다: ‘학문은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중요한 유일한 질문, 즉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아무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학문이 그 질문에 대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남아 있는 유일한 문제는 학문이 그에 대답할 수 없다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대답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고, 아직도 질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학문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다”⁸⁾라고 했다. 학문은 현실을 특정한 시각에서 선택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여 줄 수 없으며, 역사적으로 가변적이고, 문화적으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 종교의 대용물이 될 수 없으며,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한정된 “진리”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학문 연구를 더 올바르게 할 수 있다. 놀이로 학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창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학문적 권위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학문적 이론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가치와 권위를 다 부여하는 사람은 학문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따라서 학문을 하나의 게임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자유롭게 상상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따라서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 진정하게 철학하는 것이다”란 파스칼의 주장은 철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론적 학문에 다 적용될 수 있다. 주어진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비판적이 되는 것은 학문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이고, 진정한 절대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있다.

물론 놀이로 취급하기 때문에 게임을 수도 있고 무성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 선수가 장기를 매우 심각하게 둘 수 있는 것처럼 놀이라 하여 반드시 무성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직업들과 마찬가지로 학문하는 것도 하나의 소명이고 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학문을 통하여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 학문적 이론을 과대 평가하는 오류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맺는 말

그 동안 기독교가 학문에 대해서 일종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변증적(apologetic)태도를 취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런 태도는 지금도 많은 기독교 학자들에게 남아 있다. 많은 경우, 기독교 학자들이 비판적 과학철학자들보다 학문의 가치와 의미를 오히려 더 높이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학문의 우상에 매료되어 있었고 비기독교적 사상가들만큼도 비판적이지 못했다는 증거다. 기독교 학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좀 더 큰 믿음과 자신감을 가졌다면 쿤, 피어아벤트, 포퍼 등이 제시한 과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먼저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학문 바깥에서 학문을 비판하는 초월적 비판(transcendental critique) 못지 않게 비기독교 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논리적 엄밀성과 근거를 가지고 학문의 방법으로 학문을 비판하는 내재적 비판(immanent critique)도 중요하고 매우 큰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앞으로 그런 비판이 기독교 학자들에 의하여 가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독교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고 확실한 설명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8) Max Weber, "Science as a Vocatio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ed.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 151